

부가통신시장의 현황과 전망

노 상 국 / 전자신문사 주필

올해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은 지난해보다 16%정도 성장한 약 9천2백억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성장률은 지난 89년부터 94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 37.2%에 비하면 절반정도에 불과하지만 부가통신서비스산업이 도입기를 벗어나 성장기로 접어든 점을 감안하면 고성장으로 볼 수 있다.

분야별로 보면 PC통신 'EDI' 신용카드검색 등 부가통신망 분야가 전년대비 20%정도 증가한 1천3백40억원, 데이터처리 분야가 12% 신장한 6천2백억원, 데이터베이스분야가 12% 성장한 5백60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고성장은 부가통신서비스의 다양화와 정보마인드 확산에 따른 이용의 증가, 관련업체들의 서비스품질 향상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부가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보면 89년이후 94년까지 연평균 81.6%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94년말 현재 부가통신서비스관련 가입자는 총 82만 4천 9백10명이었다.

이중 PC통신 가입자가 48만명(올해말에는 1백만명), 신용카드검색분야가 30만명, 전자우편이 3만명 정도, EDI가 9천명, 컴퓨터예약서비스분야가 약 5천명선이다.

특히 PC통신의 가입자가 연평균 1백 45%늘고 있고 EDI도 90%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부터 부가통신사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고 세제지원 등 정부의 각종 육성정책이 성장을 이끄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여업체를 보면 12월 현재 부가통신서비스업체수는 2백76개사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부분 93년과 94년 설립됐고 95년에는 20여업체가 새로 참여했다. 특히 92년부터 본격 서비스되기 시작한 음성정보서비스업체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체 종사자를 보면 연평균 30%가 증가, 지난해말 현재 17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올해말에는 20만명을 훨씬 넘어 설 것으로 추계된다.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통신회선은 전체 5만2천회선에 달하는데 이중 전용회선과 일반회선이 엇비슷하게 42%씩을 차지하고 나머지 16%가 정보교환 회선으로 파악된다.

부문별 시장전망

- EDI

80년대말 철강, 자동차를 중심으로 시작된 EDI가 이제는 금융·서적·무역·물류·의료보험등으로 확산, 산업 및 생활 곳곳에 이용되고 있다. 내년에는 무역망과 물류망이 본격 가동돼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96년도 EDI시장을 성장시킬 호재를 꼽는다면 공공부문에서는 조세전산망 구축 프로젝트 완성으로 우선 내년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 조달 EDI·국방EDI·물류종합전산망·의료정보망 등이 새해부터 본격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일부는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조달EDI는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개방, 사업참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EDI사업의 획기적인 발전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정부의 각 부처별 EDI관련 통신망 구축사업 계획을 보면 통산부는 무역자동화와 산업정보망을, 보사부는 국민복지망 구축을 각각 추진하고 있으며 해운항만청은 물류자동화사업(KL-Net)을, 관세청은 통관자동화시스템을, 농수산부는 검역자동화시스템등을 별도로 추진중이다. 또 정부가 EDI 도입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정부관계기관의 EDI구축 붐은 기업에도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현대·삼성·대우 등 중공공업관련 기업들이 현재 운용중인 협력VAN을 통해 EDI활용을 적극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호재중의 하나이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내년 EDI시장규모가 올해보다 80%이상 성장, 시장규모가 2백 60억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 컴퓨터예약서비스

매년 2배이상 늘어나는등 고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컴퓨터예약서비스 시장은 항공예약에만 그치지 않고 증권거래를 비롯 공연장·행사장·결혼식장·증권거래·홈쇼핑등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용층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때 내년 컴퓨터예약서비스 시장은 올해보다 약 23%증가한 2백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해외여행자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다 각 항공사들의 CRS시스템과 상용PC통신서비스와의 망 연동으로 PC통신 이용자들의 이용이 매년 1백%이상 늘고 있고 내년부터 아시아나·대한항공의 인터넷 서비스로 국제화가 가속화 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 신용카드검색서비스

신용카드검색(CCIS)서비스 시장은 신용카드 관련 서비스의 다양화와 신용카드 보급이 확산되는 것에 비례해 늘어날 것이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직불카드서비스가 상용화돼 시장자체가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시장상황을 보면 기존의 한국정보통신(KICC)·한국신용정보(NICE)·한국신용평가(KISS)·한국부가통신(KOVAN) 등 4개사에 이어 금융결제원과 국민/비씨연합VAN(한국결제정보)이 가세할 예정이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삼성·LG·대우등 대그룹들이 계열 카드사를 중심으로 금융정보축적을 통해 향후 그룹의 마케팅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움직임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로 1년이상 상용서비스가 지연돼 왔던 직불카드 상용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

될 것이 확실해 짐에 따라 카드조회 시장은 여타 VAN서비스 시장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직불카드 상용서비스 실시는 신용카드조회 시장 일변도에 큰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카드문화 정착에 따른 현금 현금시장을 대체하고 신용카드의 틈새시장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각 시중은행들이 직불카드 상용화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예정으로 있고 차세대 뱅킹서비스, 즉 홈뱅킹·편뱅킹은 물론 아파트·스쿨뱅킹서비스, 고속버스에매서비스등 신규서비스의 잇따른 개발로 성장 곡선이 급상향의 형태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올해 성장폭 25%의 두배에 달하는 최대 50%이상 성장, 5백25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자우편

전자우편(E-Mail)시장은 EDI시장과 병행해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의 전산화경이 LAN(근거리통신망)환경으로 급속히 전진됨에 따라 적합한 정보전송 수단으로 인식, 시장규모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우편시장의 성장요소로는 대기업 정보서비스 회사들이 최근 E-메일 프로그램을 포괄하고 있는 그룹웨어를 경쟁적으로 도입, 적용하고 있고 각 기업들의 전자결제시스템과 더불어 E-메일에 대한 마인드가 향상돼 가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E-메일 기능이 기업은 그룹웨어로, 일반서비스는 PC통신서비스로 각각 통합돼 간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자우편분야는 앞서 지적했듯 독자 서비스영역보다 지난해 부터 PC통신서비스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대기업들의 네트워크가 점차 광역화 됨에 따라 전자결제등 기업업무에 네트워크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올해 1백20억원보다 25%정도 신장한 1백50억원정도로 전망된다.

— PC통신서비스

부가통신망사업분야 시장중 가장 활발하게 PC통신시장이다.

인터넷서비스는 94년 한국통신이 미국 스프린트사와 25만6천 bps로 접속, 코넷(KORNET)서비스

를 시작하면서 본격 상용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상용 서비스 개시 1년만인 지난 8월 현재 3만3천여개의 호스트가 접속돼 있으며 4백80개 기관을 포함, 총 1만7천여명이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서비스 기관도 기존의 시스템공학연구소, 한국통신, 한국전산원, 데이콤, 나우누리외에 아이네트기술, 넷스텔, 한글과 컴퓨터, 사이버텍홀딩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체들의 참여는 곧바로 시장경쟁을 불러와 그동안 단순 텍스트위주로 제공하던 서비스 내용을 급속히 변화시키는 등 품질경쟁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동화상까지 전송하는 멀티미디어통신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MSN이 본격 서비스에 나서면서 앞으로 PC통신서비스 분야는 품질에서 낙후되면 경쟁대열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는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국내적으로도 PC통신시장에 변화가 일고 있다. 전자신문을 비롯 각 언론사들이 국내 PC통신망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정보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 삼성데이타시스템등 각 기업들이 PC통신시장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상황과 그동안의 PC통신시장 추세를 감안하여 보면 96년도 이 시장의 규모는 6백70억원규모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95년 이 시장이 약 5백60억정도로 추산되는 것과 비교하면 20%정도 성장한 것이다.

- 데이터베이스사업

DB산업은 멀티미디어시대의 도래에 따른 화상DB 출현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화상DB는 DB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멀티미디어화는 DB산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시킬 계 분명하다.

최근 들어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상품정보, 여행정보 등 각종 DB 제작이 늘고 있으며 펴밍킹, 홈뱅킹서비스 등의 확대도 주목할만 한 변화로 꼽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상생활 관련 정보 4백8개, 경제·산업정보 4백54개, 학술정보 34개, 기타 11개 등 총 9백7개의 DB가 구축되어 있다.

이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96년 국내 데이터베이스 시장은 올해보다 10%정도 성장세를 보여 6백30억원

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외국 DB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현재보다 많은 DB구축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DB나 민간상업DB에 별도의 아이디어를 갖춘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착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 음성정보서비스(700서비스)

92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음성정보서비스는 초기 1년은 3배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정부의 규제와 전화 회선 이용이라는 단순성 등으로 94년부터 역성장세로 돌아섰으며 96년도에도 큰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700서비스사업이 출범초기부터 음란정보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익성정보비율을 50%이상 의무화하는가하면 경품제공 금지, 정보유형별 요금상한선 설정, 과금단위 단축 등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개발이 원천봉쇄된 상황이다.

음성정보서비스는 전화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규제와 단순 음성정보 제공이라는 제약 때문에 시장규모의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고속버스예약, 공연예약, 상품구입서비스 등이 허용된 점과 한국통신이 올해말 거래처리정보서비스를 허용한 것이 호재가 되어 95년과 비슷한 4백억원 규모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정보처리(DP)사업

부가통신사업가운데 시장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 정보처리이다. 대기업 전산실을 올 통합관리하는 시스템통합관리(SM)가 여기에 포함된다. 참여업체는 모두 1백21개업체인데 이중 정보통신서비스 전문업체가 39개사로 32%를 점하고 있다.

정보서비스사업은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기간 일괄 처리로 수행되던 작업들이 온라인 작업으로 변화되고 있고 산업 각 부문에서 정보시스템 및 자동화설비의 도입으로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서고 있다. 내년도의 DP시장규모는 현재와 같은 정보화 진전속도로 볼 때 올해보다 17%정도 늘어난 7천3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데이터단순전송(DC)사업

단순히 데이터전송사업으로 출발했던 데이터전송 사업은 망서비스와 회선재판매 사업등으로 사업영역이 확대 정착되고 있으며, 금융망과 증권망을 중심으로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업체들이 기업통신망 구축으로 잉여 설비를 재판매하는 등 데이터단순전송사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팽창해 갈 것으로 보여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8백40억원에 달한 전망이다.

- 문제점과 과제

96년 부가통신서비스시장은 총 1조7백7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규모는 올해보다 17% 정도 성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예측도 정부의 환경정비와 정보통신업계의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부가통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짚어보자

현재 부가통신서비스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개방과 경쟁이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제약요인이 너무 많다.

전기통신사업법, 무역자동화법, 전용회선제도, 상호접속기준 등 현행 법이나 제도에는 민간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신규 개발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무역자동화 촉진법에 의거, 무역VAN사업자로 지정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데이콤간에 빚어지고 있는 서비스 영역다툼도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제한적인 사업범위이다.

다음으로 민간VAN사업자들의 역할과 위상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각종 정보를 실수요자에게 중계 서비스하고 있는 민간VAN사업자를 단순 이용자로 취급하고 있다. 일부 공공DB나 상업DB를 정부가 육성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극히 제한적이며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다. 형식에 치우쳐 있으며 이미 구축된 DB역시 질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앞서 지적한 현행법상의 제한규정의 과감한 개선이나 철폐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민간VAN사업자가 서비스사업의 전부문에 대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 국내VAN사업자용으로 별도의 요금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국내 VAN사업자는 전기통신법에 규정된 통신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선설비 임차시 일반이용자와 같은 이용요금 및 사용조건이 적용되고 있어 사업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회선을 사용하는 국내 VAN사업제에게는 회선사용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회선요금을 회선사용량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사업자용 이용약관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제약요인들의 개선내지 해제가 중요하며 그런 연후 서비스의 다양화와 고품질화는 기업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끝으로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선도적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다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별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 국가,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가통신사업 기반을 구축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멀티미디어 시장의 현황과 전망

김형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멀티미디어 산업의 형성

멀티미디어 산업(컴퓨터+통신+가전+방송)은 디지털기술의 60년대에 컴퓨터 부문에 적용된 것

을 시작으로 70년대에 통신, 80년대 가전, 90년대에는 방송부문으로 확산되면서 급격히 형성되고 있다.